광양매화축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가능성 제시

LOCAL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시, 결과보고회 개최…성과 공유·향후 발전방향 논의 3무·체험형 축제 등 정착···"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의 전환으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가능성 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결과 을 제시했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중마동 주 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정인화 시장 로 인한 미증유의 낮은 개화율 속에서도 혁

올해 열린 광양매화축제가 참신한 발상 가운데 제24회 광양매화축제의 성괴를 공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심각한 기후변화 을 비롯한 관계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신적인 운영 전환과 성공적인 변화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로 도약했다는 평가다.

우선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입장 유료화 3무 축제 등을 정착시켰으며 매돌이랜드 주행사장 진출입로 확장을 통한 교통흐름 체험존, 지구마불 광양여행, 인생네컷 등 독특한 콘텐츠로 경유형 축제에서 벗어나 등 교통체계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체험형 축제로 발돋움했다.

로 효율적인 축제장 구성 및 동선 설계, 축제의 특성을 살린 생명력 있는 콘텐츠 발굴, 관광수용태세 등으로 관광객이 만 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개선, 주차면 및 셔틀버스 운영 구간 확대

무엇보다 유럽, 미국 등지에서 외국인 또 개최 이래 최초 명예감독제 운영으 _ 크루즈 관광객 130여명이 광양매회축제 장을 찾으면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잠 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과시했다.

> 개화 기간 동안 65만여명의 관광객이 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자"고 강조했 광양매화마을을 찾았으며, 다압면 상가뿐 다.

만 아니라 망덕포구, 광양불고기특화거리 아울러 도심권 셔틀버스 운영, 둔치 및 등 시내권까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직• 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 정인화 시장은 "올해 축제는 낮은 개화 율이라는 한계를 제외하면 차별화된 체험 형 프로그램과 체계적으로 구성된 축제 장, 효율적인 동선 설계, 직원들의 창의성 및 주인의식이 어우러진 매우 성공적인 축제였다"며 "매화축제를 지속 가능한 글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

여수 가막만 연안어장 재배치 11월까지 조사·측량 등 실시

여수시가 다음달부터 가막만 연안어장 내 원활한 물 흐름을 유도하고 양식장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어장 재배치 (물길 트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가막만 수하식 패류양식장 108 곳(굴 72곳·홍합 36곳), 932.6ha(굴 696.5ha, 홍합 236.1ha)로 총 8억원의 사 업비가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재배치를 위한 조사와 측량이 실시된다.

시는 이를 통해 가막만 수하식 패류양 식장의 재배치도를 완성하고 2026년과 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반영 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이후 재배치도에 따라 면허양식장 위치를 조정하게 된다.

시는 사업이 완성되면 가막만 굴, 홍합 양식장의 밀집도 조정에 따른 물길 확보로 영양염류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축적 감소와 생존율・성장률 향상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막만 내 어장 구조 정비로 항로 여유수역을 확보함에 따라 선박 사고 등 을 예방할 수 있고, 어장환경도 보다 쾌적 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화순, 꽃강길 전시 연장 운영 내달 11일까지 봄 정취 만끽

화순군은 화순 봄꽃 축제의 높은 호응 에 힘입어 꽃강길 일원에 전시된 봄축제 관련 주요 전시를 오는 5월 11일까지 연 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 연장 결정은 꽃강길 상상정원과 음악분수 주변을 중심으로 축제 동안 설 치된 봄꽃 조형물과 토피어리, 초화류 등 을 통해 방문객이 봄의 정취를 조금이라 도 더 오래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 원이다.

운영 연장 기간에는 전시장 내 주요 초 화류 전시는 물론 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 지관리도 병행한다.

28일은 연장 전시 준비를 위한 정비일 로 초화류 교체 보식, 소규모 시설물, 화 분 등을 선별적으로 철수해 안전하고 효 율적인 전시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할 예정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보성군-한수원 보성강수력발전소

상생 업무협약 체결…지원사업 2개 선정

보성군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보 성강수력발전소와 '2025년 한수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성강수력발전소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다음달 2일 개최 되는 '2025년 보성통합축제 개막식' 행 사와 '보성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 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협 있다.

력사업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병홍 보성강수력발전소장은 "앞으 로도 보성군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군은 한수원 보 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한국수력원자력㈜보성강수력발 전소는 1937년 3월 준공된 국내 최고령 수력발전소로, 매년 미력면, 겸백면, 득 량면 등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소 김철우 군수는 "보성강수력발전소는 득 증대사업, 복지 지원, 장학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보성군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보성강수력발전소와 '2025년 한수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나주, 빛가람·봉황옥산 공영텃밭 개장

총 255구획 전체 분양

도심 속 농심 체험장이자 가족과 이웃 의 소통 공간인 나주시 빛가람 공영텃밭 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나주시는 최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2025년 빛가람 공영텃밭 분양을 마치고 도시 농부 가족 400여명과 개장식 리미를 배부하며 소소한 텃밭 풍년을 기 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영텃밭은 빛가람공원텃밭 200 구획과 봉황옥산텃밭 55획 등 총 255구획 을 시민 255명에게 모두 분양될 정도로 공터 불법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면서 도 참여가 뜨거웠다.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범 운영 중 채웠다. 인 봉황옥산텃밭의 경우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텃밭 분양 기간을 1년 6개월 (2026년 9월 27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키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의 아 로 했다.

법인은 별도 행사 대신 농작물 재배 가이 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텃밭 주변에 꽃잔디를 비 롯한 봄꽃 식재 활동이 함께 이뤄졌다. 시 경관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나주시 관계자는 "공영텃밭은 가족 구 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텃밭 농 텃밭 운영 단체인 네잎클로버영농조합 사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 원)이 중점 추진 분야로 논의됐다.

"대선, 지역발전 기회로"…장흥, 정책과제 대응

2조9435억 규모 정책과제 발굴 공약 반영·사업비 확보 추진

장흥군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 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대선 대비 정책과 제를 발굴하고, 공약 반영을 위한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김성 군수 주재로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과제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장흥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3건이 보고됐으며, 이들 과제 의 총 사업비는 2조9435억원 규모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는 문화관광분 성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이웃 야에서 '노벨 문학도시 장흥' 실현을 위한 국립 노벨 문학관 건립(450억원)과 천년 고찰 보림사 권역 종합정비 사업(450억

SOC 분야에서는 대덕 신리~장흥 순지 계획이다. 드북, 모종, 소농기구 등이 담긴 선물 꾸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4차로 확장(4274억원), 안양 기산~사촌



장흥군은 최근 김성 군수 주재로 대통령 선거 대비 정책과제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4차로 확장(670억원), 장흥 수문~고흥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군수 이하 전 녹동간 연륙교 건설(1조원) 등을 통한 지 체 실과소장이 함께 토론을 통해 정부, 각 역 교통 여건 개선사업이 보고됐다.

농업분야에서는 기능성 쌀 전문 생산단 계획을 논의했다. 지 조성(80억원), 고소득 농산물 무병묘 공급센터 건립(500억원) 등을 추진해 지 역의 주력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군은 보고회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정당 및 전남도의 정책방향에 맞춘 대응

김성 군수는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지 역의 현안사업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돼 장 흥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